

문화

방학 코앞...떠나자! 문화체험

신나는 여름방학, 아이들과 함께 문화의 바다에 '퐁퐁' 빠져보자. 여름방학을 앞두고 지역 문화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독서 능력키우기·예절 교육 등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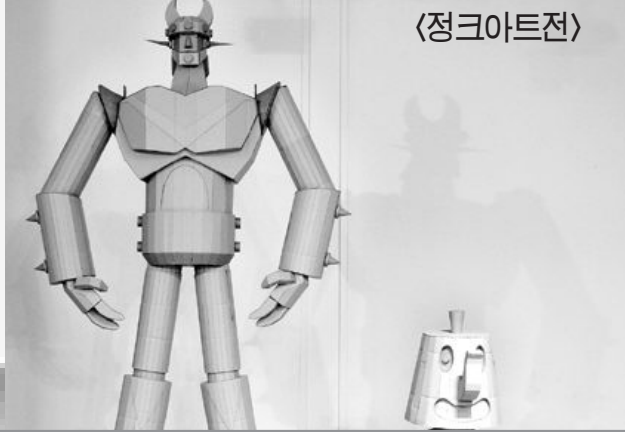
문화단체 어린이 대상 문화의 바다로



〈디지털식물도감〉



〈별난 물건 박물관〉



〈정크아트전〉

▲시립미술관 정크아트전=버려진 감동이 멋진 태권V 로봇으로 변신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내 어린이갤러리 10월 25일까지 '정크아트'전.

강건이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씨는 예초기 엔진, 낫은 농기계 부품 등 폐농기계 부품으로 만든 다양한 로봇을 전시한다.

또 김씨는 만화 태권V에 등장하는 로봇을 출품했고, 이씨는 철관 위에 다양한 글자 형태도 고양이, 사슴 등을 만든 작품을 선사한다.

▲시정자미디어센터 디지털 식물도감=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신선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식물도감'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도서관 이용법과 정보활용 교육, 나를 돌아보는 책임기, 자기 주도적 독서능력 키우기 교육 등이 진행된다.

사직·산수도서관) 별로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별 30명씩, 총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광주향교 예절교육=광주향교(전교 박태근)는 여름방학을 맞아 무료 한문·예절교육을 21일~8월14일까지 진행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초·중·고생은 20일까지 과목(사자소학·추구·화어집·소학·천자문·명심보감·서예·전통예절)을 선택해 광주향교에 등록하면 된다.

▲시정자미디어센터 디지털 식물도감=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신선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식물도감' 행사를 진행한다.

인터넷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위한 캠프도 마련된다. 오는 29일부터 2일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해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의 현황을 짚어내고 대책 방안 등을 토론했다.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밖에도 사진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소곤소곤 사진 이야기'와 청소년 디카 교실이 각각 8월4~21일, 8월4~8일까지 열린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별난 물건 박물관=달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컵, 어깨에 걸 수 있는 우산 등 기상천외한 발명품과 별난 물건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지루하고, 조용한 박물관 분위기에 벗어나 관람객들이 마음껏 전시 작품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다.

소리, 생활, 과학, 빛, 움직임 등 다섯 가지를 주제로 개발한 발명품, 다양한 소리를 내는 음풍, 빛을 이용한 별난 물건들을 선보인다.

하지만 순수한 12가지의 타는 놀이기구를 선보이는 '별난 탈 것 체험'전이 곁들여진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필삼기자 kps@



남도의 삶·문화 조명

광주불교교육원 여름 특강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수균)이 남도지역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는 2009년도 여름특강 열일강좌와 '우리지역 문화알기'를 개최한다.

7월·8월 두 달간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매주 목요일 조현국 국립광주박물관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 철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강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철기시대-신창동 복합 농경 유적(9일·조현국 국립광주박물관장) ▲마한·백제시대-영산강유역의 고대문화(16일·최성락 목포대 인문학박사) ▲통일신라시대-전남지역의 불교유입과 문화(23일·최인선 순천대 사학과 교수) ▲신라말-고려초-선종의 수입과 발전(8월13일·이계표 조선대 사학과 겸임교수) ▲고려시대-고려불교와 결사운동(20일·조명재 신라대 사학과 교수) ▲조선시대-배불승유의 극복(27일·김민영 법사)

강의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우리빌딩 10층 교육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불륜 감추랴, 시체 처리하랴 '요절복통'

유·스퀘어 공연 '룸넘버 13'

지역 관객들에 웃음 선사

영국 런던의 한 호텔. 불륜 관계인 여당 국회의원 리처드와 야당 총재 비서 제인은 한참 분위기를 즐기는 중이다. 방에서 갑자기 발견된 시체 때문에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불륜 사실을 감추려, 시체를 처리 하라 등 동분서주하고 보좌관, 지배인 등 등장 인물들이 얽히면서 한바탕 헤프닝이 벌어진다.

실 새 없이 웃음 폭탄이 터지는 연극 '룸넘버 13'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중인 '룸넘버 13'(19일까지 평일 오후 7시, 주말 오후 3시·6시)은 서울산(產) 연극으로는 처음으로 광주 소극장에서 한달간 장기 공연을 진행중인 작품이다.

'룸넘버 13'의 재미는 잘 짜인 각본에 있다. 등장인물들의 얽히고 설켜 관계를 절묘하게 풀어내는 탄탄한 스토리가 불 흐르



듯 흘러가며, 때론 긴장감을 준다. 여기에 강도 높은 코믹 코드가 가미돼 관객들을 실 새 없이 웃게 만든다.

'룸넘버 13'은 실 새 없이 펼쳐지는 연극 인자라 배우들의 앙상블이 중요하다. 일부 배우들의 연기가 어색하기도 하지만 리처드 역의 송영재와 지배인 역의 박은호 등 극을 이끌어 가는 주연급 배우들의 연기가

극의 안정감을 높인다.

'라이어'의 작가 레이쿠니의 최신작인 터라 전체 작품 구조가 '라이어'와 유사한 탓에 '라이어'를 이미 본 관객에게는 신선함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마음껏 웃고 싶은 관객이라면 티켓을 구입해도 좋을 듯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노무현 前대통령을 그리며...

클래식 연주자들 나누서 10일 추모공연

오는 10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49세를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클래식 연주자들이 추모 공연을 갖는다.

나주문화회관이 주최하고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모임 무지크 바움이 지역 대표 클래식 연주자들과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 음악회 '사람 사는 세상과 이별하며'를 준비했다.

이번 공연에는 첼리스트 김창현, 비올리스트 신영문, 피아니스트 김경아·이수미,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연·한진아·송원진, 바리톤 황성철, 소프라노 김지선씨 등이 참여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오펜바흐의 '자물린의 눈물', 쇼스타코비치 장례식에서 연주됐던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곡 8번', 바하의 '파르티타 2번 소 파르논', 말러의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등 추모 분위기와 어울리는 곡들로 선곡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작곡가 김선철씨가 만든 추모곡 '현악앙상블, 피아노 그리고 바리톤을 위한 운명이다'도 초연된다. 김씨는 고 전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운명이다'는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에 등장하는 형상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박문경씨가 지휘를 맡아 무대에 올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status, and a list of agents at the bottom.